

# “작은학교가 해법”…도교육청, 학령인구 위기 돌파

강진 작천초서 전략기획추진단 출범  
기존 TF 확대 조직원 등 30명 참여  
‘전남글로벌컬학교 계획’안 11월 완료

전남도교육청이 작은학교에서 해법을 찾아 지속 가능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강진 작천초등학교에서 ‘학령인구 위기 대응 전략기획추진단 출범식’을 갖고 학령인구 위기 극복 의지를 다졌다.

출범식에는 김대중 도교육감을 비롯해 추진단 운영위원장인 김미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위원, 작천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학령인구 위기 대응 전략기획추진단’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TF를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교직원 등 30명으로 꾸려졌다.

출범식은 100년 넘게 지역과 함께 온 강진 작천초에서 열려 작은학교에서 전남의 위기 대응 정책이 시작된다는 의지와 방향성을 드러냈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강진 작천초등학교에서 ‘학령인구 위기 대응 전략기획추진단 출범식’을 갖고 학령인구 위기 극복 의지를 다졌다. 사진은 학생들과 함께 ‘이제부터 100년, 지속발전 전남교육’ 깃발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모습. <전남도교육청 제공>

행사는 김미 추진단 운영위원장의 ‘학령인구 위기 대응 2030 지속 가능 전남교육 실현 결의문’ 낭독, 미래세대인 작천초 학생들에게 ‘극복, 희망, 공생’의 메시지 전달, 추진단 협의회로 진행됐다.

전남 작은학교는 차별화된 브랜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특성화교육을 추진하고, 학생 주도

성과 학습력 향상을 위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 경쟁력을 높여왔다.

초·중 13개교에서 운영 중인 ‘전남형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는 매력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학생 유입 효과를 입증하며, 지속 가능한 전남형 작은학교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또 271개교에서 운영 중인 ‘작은학교 특색 프

로그램’은 학교별 창의적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초 교육청 주관으로 지난해부터 개최된 ‘전남도교육청 작은학교 영화·영상제’는 올해 26개교가 참여해 각 학교의 매력적인 면면을 영상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남형 글로벌작은학교의 가치를 확산하는 미래형 교육

문화 플랫폼으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교육 소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정책 연구와 TF 운영을 병행해 왔으며, 지난달 19일에는 교육감 주재 국·과장 회의에서 ‘전남글로벌컬학교 실현 5개년 계획(안)’을 논의하고 ▲전남교육 강점 강화 ▲지역교육 위기 완화 ▲전남글로벌컬교육 특화의 세 가지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학령인구 위기 대응 전략기획추진단은 향후 3개 전략팀별 협의회를 통해 추진 과제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 대상 포럼 등 공론화를 통해 수립된 의견을 반영해 11월까지 최종안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우리가 당면한 학령인구 감소는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이다. 지속 가능한 전남교육은 모든 교육주체의 역량을 모아 적극 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명”이라며 “지역교육 존립을 위협하는 이 거대한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꿔 전남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다이지자

## 학생 복합 모험시설 ‘어드벤처 챌린지93’ 개장

광주학생교육원, 국내 최대 규모 조성  
93개 도전과제…체험형 교육공간 기대

광주시교육청학생교육원(이하 광주학생교육원)은 “최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명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드벤처 챌린지93’(사진)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어드벤처 챌린지93’은 총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준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모험활동시설이다. 공중 자전거 등 다양한

난이도의 도전과제 93개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롤러코스터와 집라인을 결합한 253m 규모의 곡선형 하강시설과 18m 높이의 스카이 점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 시설이기도 하다.

광주학생교육원은 이번 시설을 활용해 광주 지역 학생의 수련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 수련은 지난 4월 광주서광중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7일까지 총 86기에 걸쳐 진행된다. 수련 활동은 1박2일 또는 2박3일로 실시되며, 올해 연말까지 8천여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모든 과정은 무료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어드벤처 챌린지93을 많은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광주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전과 성취감을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지자

광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광주여상고 재학생에 진로 지원

광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최근 지역 거버넌스 협력 일환으로 특성화고인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설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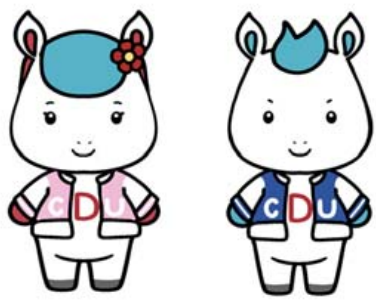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7월 양 교육기관이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맞춤형 진로 지원 모델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1차 과정에서는 ‘프레디저 카드’를 활용한 자기 이해 중심 진로 설계 활동이 이뤄져 참여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 유형과 적성을 탐색하고 개인 맞춤형 진로 방향을 설정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2차 과정에서는 진로 로드맵 설계를 위한 직무 및 경로 이해 활동이 중심이 됐다.

참여자 대상 설문 결과, 프로그램 내용의 실효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특히 진로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준우(회계세무학과 교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청년의 진로 인식 제고와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특성화고 및 지역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 청년 진로·취업 지원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이지자



초당대 마스코트 ‘초초’와 ‘당당’

## 초당대, 대학 마스코트 ‘초초와 당당’ 선정

공모전서 이나림 학생 대상 수상

초당대학교 학생성공진흥센터는 “최근 열린 ‘CDU 핵심가치 마스코트 공모전’에서 이나림 간호학과 학생이 디자인한 ‘초초와 당당’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마스코트는 초당대학교의 핵심가치와 아이덴티티를 잘 반영했으며, 대학의 비전과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초초와 당당’이라는 이름은 한나 기획부처

장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으며, 마스코트 디자인은 높은 기상과 강인한 의지를 상징하는 한혈마를 캐리커화한 형태로 제작됐다.

특히 초초의 머리핀은 교화인 동백꽃을, 당당이의 꼬리는 교목인 은행나무잎을 형상화해 학문과 성장의 길에서 학생들이 함께 영광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김다이지자



##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

